

# 단풍보다 진한 산사의 추억

### 세계국술원 회원 300여명 백담사서 사찰 체험

아침 햇살 속의 단풍은 불꽃이었다. 10월 26일 아침. 붉고 누런 불꽃으로 빛나는 내설악 백담사 계곡에 때 아닌 탐 쌓기 불사(佛事)가 벌어졌다.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5인 1조로 나누어 15분 동안 '보다 높게 보다 크게 보다 아름답게' 탐을 쌓느라 왕자지킬 했다.

10월 22일과 23일 부산에서 세계국술원 선수권 대회 및 시범경기 행사를 치르고 백담사(주지 일민) 사찰 체험에 참가한 세계국술원 가족들의 탐 쌓기 경연이었다.

25일 오후 백담사에 도착해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의 환영법어로 임제식을 갖고 1박 2일의 사찰 체험에 든 국술원 가족들은 계룡산 무상선원의 무심 스님으로부터 한국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선 지도를 받았다.

또 25일 저녁 백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전통제례의식을 관람하고 26일 새벽예불에도 동참했다. 탐 쌓기 경연은 한국사찰에서 하룻밤 동안 체험하고 배운 것을 마음속 깊이 갈무리 하는 이벤트였다.

"참선 하듯이...참선 하듯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마고 헉스트라(26) 양이 이끄는 팀은 지난밤에 무심에게 배운 참선하는 마음으로 탐을 쌓으라고 동료들을 독려했다. 자신들의 키만큼 높게 쌓는 것이 목표였고 중간에 한번도 허물어지지 않고 키 높이의 돌탑을

쌓았다. 마고양은 "상은 못 받았지만 탐을 쌓는 즐거움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흡족해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밥 베테(48) 씨 팀은 '산과 절 그리고 가을'을 주제로 탐을 쌓았다. 큰 바위를 산으로 삼고 그 위에 탐을 쌓고 탐 체계마다 낙엽을 장엄해 4등을 차지했지만 심사 도중에 "회장님 잘 봐주세요. 점심 사 드릴까요"라고 청탁성 여부를 물어 '갑갑해 퍼기 5회 실시'의 벌칙도 받았다.

맨 위에서 묵묵히 탐을 쌓는 마이크 스미스(34) 씨 팀. "서부 텍사스 국술원 가족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탐을 만든다"는 게 이들의 각오. 큰 돌들을 모으느라

이마에 땀이 맺혔고 차곡차곡 20여개나 쌓아 올리느라 등에 진땀이 났지만 웅장하게 솟은 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했다.

1박 2일의 산사체험을 마치고 서인주 회장은 "세계의 국술원 가족들은 150만 명인데 모두 한국의 전통무술을 배우는 사람답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회원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산사체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술원 가족들은 설악산 단풍보다 진한 사찰 체험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서울을 거쳐 28일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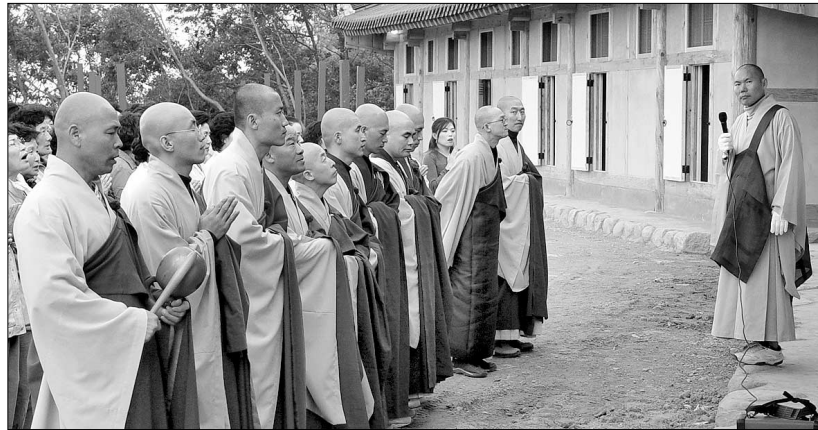
글 사진/백담사=임연애 기자



백담사 앞 계곡에서 돌탑을 쌓고있는 외국인들

# 감포에 '문 없는 문' 열어

### 영남불교대학 무문관 무일선원 개원, 18명 입방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10월 24일 경주 감포에 무문관 선방 무일선원을 낙성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10월 24일 경주 감포도량(주지 연봉)에서 무문관 선방 무일선원 낙성식을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 감포도량 주지 연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낙성식은 현판식, 육법공양, 축하 음성공양, 우학 스님 인사, 테이프 절단식, 관세음보살 정근, 선방 안내로 진행됐다.

회주 우학 스님은 "진실한 자성자리 찾는 참선 도량을 찾아 2001년 감포도량을 개원하고, 지난해 백담사 무문관에서 수행체험을 통해 무문관 건립 의지를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무일선원 무문관은 이번 동안가부터 가방부를 들인 승남 10~20년 비구 200명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18명의 누푸른 남자가 입방해 생사를 건 용맹정진에 들어가게 된다. 무일

선원은 약 4평 정도의 선방 18칸, 2층 규모의 요사채를 갖췄다. 글·사진/경주=배지선 기자

## 광주·전남 불교합창제 성황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지난 10월 26일 5·18 기념 문화관 민중홀에서 '광주, 전남 불교합창제 예술제'(사



10월22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로 취임한 원행 스님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 "미륵십선운동 활발히 전개할 터"

### 금산사 13대 주지 원행 스님 취임식 및 1406주년 개산대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13대 주지 원행 스님 취임식이 10월 22일 오전 10시

대적광전 앞에서 봉행했다.

금산사 산문이 열린지 1406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를 겸한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은해사 주지 법타, 월정사 주지 정념, 대흥사 주지 몽산,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등 각 교구본사 주지와 영남 학단 월우 설승 스님 등 중앙총회의원, 김완주 전주시장, 유성열 정읍시장 등 지역 기관장,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지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미륵십선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를위해 정유재란 때 소실된 봉천원 선방과 역경의 산실인 광교원을 복원해 포교와 전법교화, 복지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제=이준엽 기자

## 공주 감사 영구대사 추모제



공주 계룡산 감사주지 장곡은 10월 22일 감사 표충원에서 '제6회 기려당 영구대사 추모대제'(사진)를 봉행했다.

추모대제에는 조계종 근교교구장 일민 스님, 감사 주지 장곡 스님, 심대명 총남지사, 오영희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감사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기려당 영구대사와 800여 의승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대제를 열어왔다. 한영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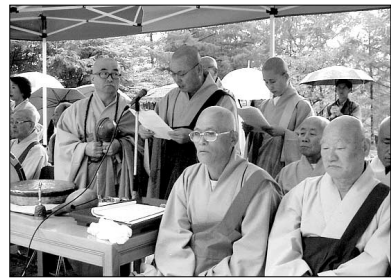
## 천태종 의정부 정화사 봉불식

경기북부지역 유일한 천태종 사찰인 의

정부 정화사(주지 탄성)가 10월 22일 오전 10시 '상월원각대조사 진영 및 관음조상 봉불식'을 녹양동 새 가람에서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춘광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이날 봉불식에는 종단 스님 20여명과 의정부사암련 회장 정명 스님, 열린터리당 강성종의원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 호국영령 위한 합동 위령제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원연합회(공동회장 철안·금담) 산하 수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는 최근 원적사 총합담에서 6·25전쟁 당시 산화한 이 지역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제2회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지역 스님들과 관내 각급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사원연합회 산하 천수천안 자일원사(단장 금담)는 남양주 자원봉사센터와 청년회소 후원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소년 사회문제를 주제로 전 문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한영우 기자

## 대구지하철 2호선 26개역

### 부처님 법음 계시판 설치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류병규)가 10월 26일 대구지하철 2호선 26개 전역사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 1점, 역마다 2개씩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계시판을 설치했다. 류병규 회장은 "대구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지하철 2호선 주변사찰들의 협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풍경소리는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지하철 주요 역사 639곳에 총 1849개의 계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 백양사, 박정자 전통문화·그림웃음

장성 백양사(주지 두백)는 백양단풍축제를 기념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성보박물관에서 '박정자 전통문화 및 그림웃 특발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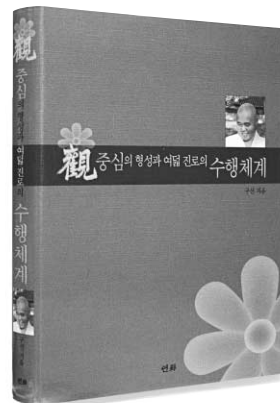
불화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에 불교문화를 활용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불화가 박정자(종교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씨의 불화작품 50점, 그림웃 20점이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 광주 해룡사, 교도소 위문

광주 해룡사(주지 혜우)는 10월 20일 순천 교도소에서 '수용자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1000여명의 재소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소연, 허연이씨 등 대중가수와 4인조 댄스팀 등이 출연해 수용자들을 위로했다. 매달 전국 교도소를 방문해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혜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죄업을 참회하고, 참 마음을 찾아 더 이상 업장을 짓지 않도록 꼭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구현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버리면 사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럴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써 나와 경계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가 줄 알아야 한다.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깨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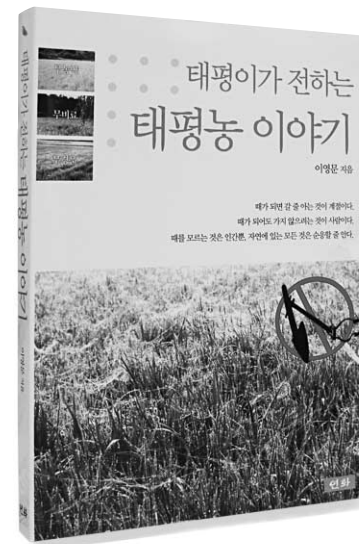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다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정을 행하는 일이다. 자기 중심이란 가슴에 새겨진 마음가운데, 즉 조건의 주체이다. 한 경계를 놓고 중심을 돌린 조정을 행하는 것은 인으로 중심의 진로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밖으로는 경계와 의식의 인식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자기 근본이란 의식의 발원처를 말한다. 한 경계를 통해 근본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경계를 중심에 비추어서 근본을 인식하는 척도도 삼는 것을 말한다.
- 셋째는 자기 면도의 일이다. 자기 면도는 자기를 이루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생명의 내부의 식은 '세, 수, 상, 행, 식' 오오로 이루어져 있다. 한 경계를 통해서 자기 면도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한 경계를 중심에 비

- 추어서 좀더 깊고 넓게 내부의식이 발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각성이란 자기를 주시하는 의지적인 힘이다. 각성은 조건의 행을 통해서 이뤄진다. 중심을 주체로 해서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의지가 경계와 근본, 그리고 중심 사이를 넘나들며 이뤄지는 것이 각성이다.
-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 실현하는 일이다. 자기 존재목적이란 생각이 아름다워지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한다. 경계를 놓고 보면 경계가 아름다워지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곧 자기 존재목적이다. 경계와 자기간의 조화가 실현되었을 때 이마를 일러 '자기 존재목적 실현했다' 라고 말한다.
- 여섯째는 좀더 넓은 교류성을 갖추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주고 있는 의식의 영향과 근본을 주시할 수

- 있는 각성의 정도, 그리고 중심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의 교류성을 갖게 된다.
-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자기 인식의 틀이란 자기 인식이 활용되는 범주를 말한다. 존재는 자기 인식의 틀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활용한다. 자기 인식의 틀을 바로 보아서 그것을 넓혀 갈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일이다. 자기 제도는 자기의 습성과 관념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는 몸의 제도와 마음의 제도로 나뉘어진다. 본성의 공함을 증득하기 이전에는 방편이나 중심을 통해 자기 제도를 행하고 본성을 증득한 이후에는 생물의 중한 자리와 자기에 생기는 기준을 활용해서 자기 제도를 행한다.

#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산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한 농사법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삶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